

임기영 복귀 임박...KIA 마운드 혼풍 분다

함평 연습경기 실전 피칭

3이닝 2탈삼진 무실점

“아픈 데 전혀 없지만

완벽하게 돌아오겠다”



KIA 타이거즈의 '잡수함' 임기영이 출격 준비에 나섰다.

어깨 부상으로 재활을 해왔던 임기영은 3일 함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호원대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와 첫 실전 피칭을 소화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이후 첫 등판에 나선 임기영은 3이닝을 피안타 없이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제구 난조로 첫 타자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등 7구 승부를 한 임기영은 헛스윙 삼진으로 첫 아웃 카운트를 잡았다. 이후 임기영은 유격수 땅볼과 중견수 플라이로 삼자범퇴로 이닝을 종료했다.

2회는 9개의 공으로 끝났다. 임기영은 유격수 땅볼로 두 타자를 처리한 뒤 체인지업으로 상대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두 번째 삼진을 기록했다.

3회에도 초구에 유격수 땅볼을 만든 뒤, 1루수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6-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6개의 공으로 3회를 마무리했다.

임기영은 31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스피드는 135km를 기록했다.

임기영은 “등판을 하기 전에는 걱정 반, 설렘 반이었다. 오랜만에 공을 던진다는 게 설레기도 했지만 혹시 아플까 봐 걱정을 했다”며 “아픈 것도 없고, 오랜만에 던진 것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초반에는 마음이 급했다. 타이밍도 빠르고 그래서 조절을 했다. 다시 마운드에서 서 기분이 좋다”고 첫 실전 등판 소감을 언급했다.

복귀를 위한 스타트는 끊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완벽하게 돌아가겠다는 각오다.

임기영은 “부상으로 올 시즌을 앞두고 계획했던 게 틀어졌다. 개막 엔트리와 선발이 첫 목표였는데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것도 있었지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프지 않고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목표는 아프지 않은 것이다”고 언급했다.

KIA 마운드의 선전은 임기영에게 즐거운 동기부여다.

임기영은 “1군 경기를 다 챙겨보고 있다. 캠프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이 잘 던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같은 팀 동료로서 기분이 좋다. 나도 그만큼 더 열심히, 잘해야 한다”며 “일단 아프지 않고 첫 경기를 잘 한 만큼 다음 등판에서는 더 세계 던지는 데 신경 쓰겠



KIA 사이드암 임기영이 3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호원대와의 3군 연습경기에서 부상 후 첫 실전 피칭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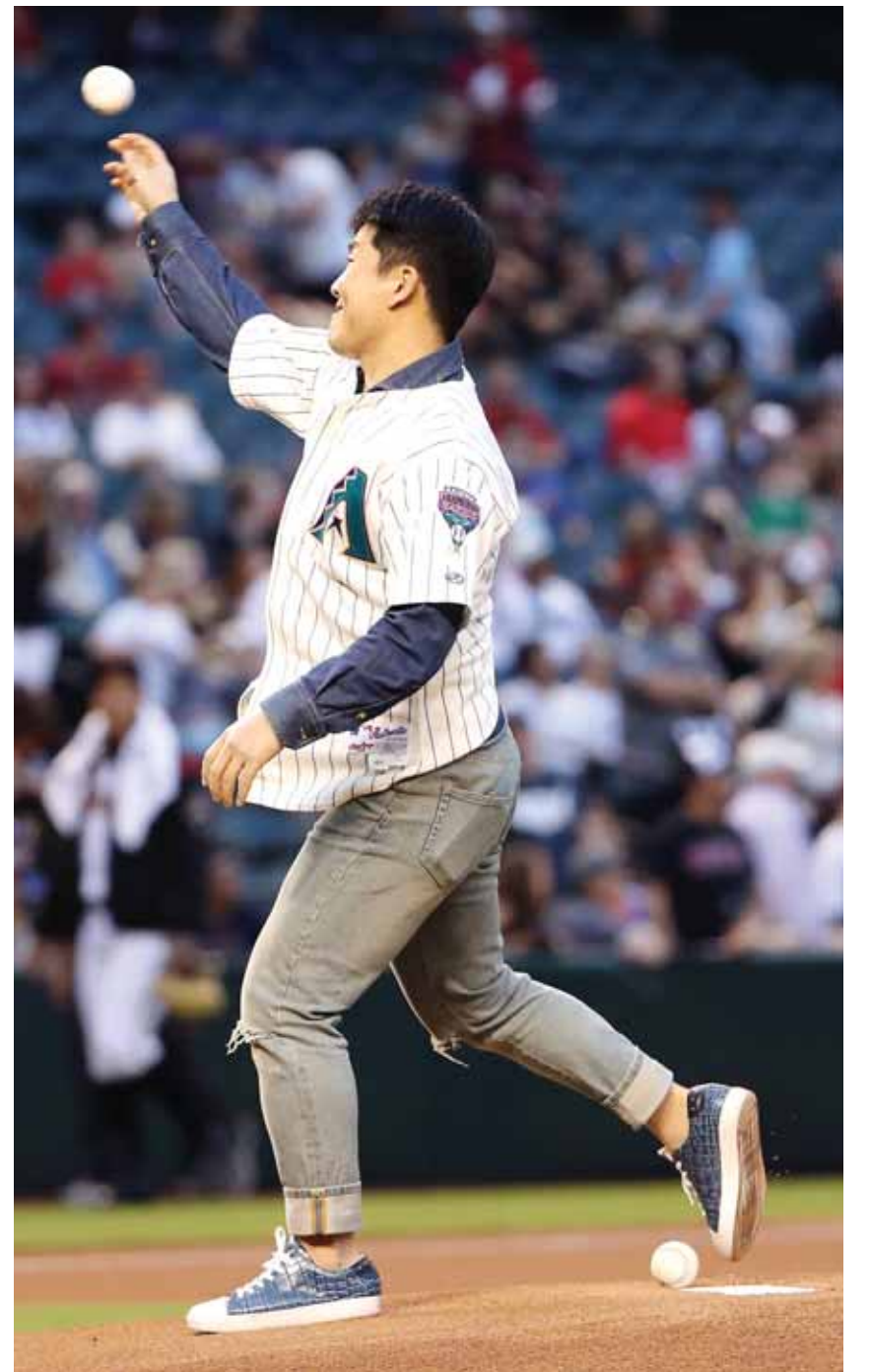
다. 변화구도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각이랑 움직임 등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임기영이 복귀를 위한 첫발을 디디면서 KIA 마운드 경쟁은 더 치열해지게 됐다.

이민우-정용운을 4-5선발로 해 시즌을 연 KIA는 2일 현재 불펜진이 1.9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와 다른 출발을 했다. 'V11'의 주역인 임기영까지 움직이면서 KIA 마운드에 혼풍이 불게 됐다.

한편 3군 연습경기에서 합격점을 받은 임기영은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상무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를 통해 두 번째 실전 점검을 할 전망이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해잡수함' 김병현이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에서 시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만에

김병현 친정팀 애리조나 찾아 시구

'해잡수함' 김병현(39)이 친정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찾았다.

3일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올 시즌 미국프로야구(MLB)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에 처음 선발 등판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홈구장 체이스필드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다.

지난 2001년 애리조나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김병현이 이날 시구자로 구장을 찾은 것이다.

애리조나 방문이 얼마만이나는 질문에 김병현은 “10년도 넘은 것 같다.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못왔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고 말했다.

김병현은 구단 요청도 받고 MLB닷컴 쪽에서도 시구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초밥집도 운영하고 있다는 그는 “한 번 와서 드셔봐라. 굉장히 맛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아직도 아는 동료가 있는지 묻자 김병현은 “선수들은 없지만 클럽하우스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아직 있더라. 또 스카우트들도 몇 명 있더라. 미국 올 때 나를 데리고 왔던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직도 계시더라. 저녁때 만나기로 했다”며 “여기 오니까 좋으면서도 시간이 많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병현은 1999~2003 시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활약했다.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뉴욕 양키스를 물리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김병현이 월드시리즈에서 홈런 두 방을 맞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장면은 국내 야구 팬들에게도 오래도록 남아있다.

한편 애리조나 구단은 이날 김병현의 등장 소식을 트위터로 알리고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코너를 운영했다.

김병현은 먼저 애리조나에서 뭘 때 가장 좋은 기억이 무엇이었느냐는 물음에 2001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루이스 곤살레스가 끝내기 안타를 쳤을 때라고 답했다. 또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타자로 프레스턴 윌슨을 들며 그의 부러진 방향이에 발목을 맞아 특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병현은 요즘 어느 팀에도 묶이지 않은 자유계약선수(FA)로 몸무게를 살피고 있다면서 웃으며 근황을 전했다.

김병현은 “선발 투수로 메이저리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팀의 결정을 존중해 구원 투수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구원 투수로 너무 많은 경기에 등판해 녹초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역 때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병현은 체팅이 끝난 뒤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많이 사랑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했다. /연합뉴스

오승환 홈런 허용에도 첫 승

이틀 연속 등판한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올 시즌 첫 홈런을 허용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첫 승리를 챙겼다.

오승환은 3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7회초 등판해 1이닝 동안 1피안타 2사구, 1실점 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하지만 토론토는 공수교대 후 러셀 마틴

의 역전 투런 홈런으로 3-2로 전세를 뒤집었다. 오승환은 팀이 3-2로 역전에 성공한 8회초 라이언 테페라와 교체됐다. 8회말에는 알레디미스 디아스가 쉐기 솔로포를 터트렸다.

오승환은 패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시즌 첫 승리(1세이브)를 수확했다. 평균자책점은 3.00. 오승환은 이날 23구를 던졌다. 포심 패스트볼 최고 시속은 148km에 그쳤다. /연합뉴스

류현진 3.2이닝 3실점 강판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첫 등판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했다.

류현진은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3.2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5개씩 허용하고 3실점 했다.

3-3으로 맞선 2사 3루에서 '천재' 폴 골드슈미트 타석 때 교체됐고, 구원 투수 페

드로 바에스가 추가 실점을 막아 류현진은 승패 없이 물러났다.

빠른 볼의 위력은 지난해보다 향상됐다. 그러나 볼넷 5개가 말해주듯 제구가 좋지 않았고 모두 2사 후에 실점에 아쉬움을 남겼다.

볼 카운트 싸움에서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하지 못한 류현진은 수세에 몰렸고, 결국 볼넷으로 위기를 스스로 불렀다.

/연합뉴스

김연아 4년만에 아이스쇼 무대

'피겨여왕' 김연아가 4년 만에 아이스쇼 무대에 선다.

3일 올댓스포츠는 내달 20~22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올댓스케이팅 2018'에 김연아가 특별출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은퇴 무대로 열린 '올댓스케이팅 2014' 이후 4년 만의 아이스쇼 출연이다.

김연아의 안무가였던 데이비드 윌슨이 안무를 맡을 이번 아이스쇼에는 김연아 외에도 전·현직 국내외 피겨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아이스댄스 세계 정상을 양분하고 있는 캐나다 테사 바추-스콧 모이어 조와 프랑스 가브리엘라 파파다키스-기욤 시즈롱 조가 함께 출연해 명품 댄스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스댄스의 전설인 바추-모이어는 평

창동계올림픽에서, 파파다키스-시즈롱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우승자인 캐나다 케이틀린 오스먼도 국내 팬들을 만난다.

평창에서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밟은 파트릭 찬(캐나다), '스핀의 황제' 스테판 랑비엘(스위스), 평창올림픽 패어 동메달의 미건 뒤아멜-에릭 레드퍼드(캐나다)도 출연한다.

국내 선수로는 여자싱글 간판 최다빈(고려대)을 비롯해 이준형과 박소연(이상 단국대), 여자싱글 유망주 '트로이카' 임은수(한강중), 유영(과천중), 김예림(도장중)이 나선다.

이번 아이스쇼의 공연 프로그램과 입장권 가격 등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순천이수중 야구 7년만에 소년체전 전남대표 출전

순천이수중이 전남대표로 7년 만에 소년체전 무대를 밟는다.

순천이수중(교장 김인수)은 최근 여수진남야구장에서 끝난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전남대표선발전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선발전 첫 경기에서 화순중을 4-3으로 꺾은 순천이수중은, 나주 세지중을 6-3으로 이기며 연승에 성공했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도 구원으로 투

입된 에이스 이준혁의 호투 속에 여수중

남대표 자격을 얻었다.

2011년 이후 처음 소년체전 출전을 이끈 김규태 감독은 “지난겨울 유난히 추웠는데 선수들이 많은 시간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잘했다. 선수들의 의지가 강했다. 선수와 같이 고생한 코치님들에게 고맙다.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분들도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며 “수비력과 투수력이 강점이다. 소년체전 준비 잘해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